

졸속 심사에 감투싸움... 파행 일룩

전남도의회가 6·2 지방선거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지만 부실한 예산 심의와 자리 다툼으로 인한 파행 등 구습을 답습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도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는 등 허술하게 예산을 집행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안 부실심사 집행부 눈치 보기(?)=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6일 '2010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국내선진 양식장을 견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5000만원과 여성플라자 3층 옥상에 소규모 정원을 설치하는 비용 8000만원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5억3380만5000원)을 부활시켰다.

김소영(민주·비례)의원이 기획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답사를 거쳐 "적자를 보고 있는 데다, 이미 잔디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원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사업조차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심사 원칙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

■전남도의회 첫 임시회부터 지질 논란 행자위, 전남학숙 예산 어물쩍 부활 망신 자초 집행부도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비난 목소리

아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않아 망신을 자초했다. 의원들은 당초 전남학숙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학생생활실 100곳에 대한 에어컨 설치비용 4000만원과 통학버스 구입비(4530만원) 등 9580만5000원을 삭감했다.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게 삭감 사유였다.

하지만 무더위로 인한 학생들 고통과 시내버스조차 제 때 다니지 않는 사정을 뉘엿게 파악한 뒤 어물쩍 되살리는 소동을 벌였다.

◇집행부도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전남도는 지난해 본예산에 친환경축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해 쓰겠다고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스스로 삭감했다. "정작 사업을 하려고 보니 희망자가 없어 삭감하게 됐다"는 설명이지만, 집행부 스스로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했다는 점을 인정할 썬

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해양생물 군상 물질개발 지원사업과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받아놓았던 1억원도 삭감했다. 일단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했다가 예산이 남아돌자 삭감한 셈인데, 도 관계자는 "예측을 잘못해 사업을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리다툼에 현안은 뒷전=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운영 과정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독단적 운영을 들어 상임위 불참 등의 징벌행위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일선 학교 통합할 문제 등을 담은 교육 현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 및 의견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져 자치 학생·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을 처지다.

이같은 행동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소방서장이 임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왜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따져 묻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해석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의정활동 자리에서 사적인 논란거리를 비상식적 방법으로 추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곽영채(강진 1) 의원은 20일 열린 교육청 업무보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완도교육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반직 행정직장을 교육청과 3시간이나 떨어진 금당지구로 보낸 적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육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신규 배치가 이뤄졌는데 그 직원은 올라오지 못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전보인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일선 학교 통합할 문제 등을 담은 교육 현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 및 의견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져 자치 학생·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을 처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상어 발사 27일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에서 함정들이 어뢰(청상어)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대북금융제재 3단계로 진행”

제재 지정→제3국에 통보→비협조시 거래 중단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3단계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제재

대상 지정 ▲제재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 통보 및 거래중단 권고 ▲제3국 금융기관의 비협조시 미국 금융기관과 이들 제3국 금융기관간의 거래 중단 등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

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중국으로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련 제재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중동에도 일부 개설돼 있지만 유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北, 2005년 아프간 반군에 미사일 판매”

북한이 지난 2005년 아프간 반군에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보고서가 기밀 문서 폭로 전문사이트가 공개한 9만 여건의 아프간 관련 기밀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위클리 크스가 공개한 문건 중에는 “지난 2005년 11월19일 아프간 ‘헤즈브 이슬라미’(이슬람당) 지도자인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와 오사마 빈 라덴의 재

정자문인 ‘아민 박사’가 이란을 거쳐 북한에 갔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두 사람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미군과 동맹군의 비행기를 격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격조종로켓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록돼 있다.

◇연합뉴스

“문화거버넌스 구축...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건설”

광주시의회-문화도시협의회
‘민선 5기 문화정책...’ 토론회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27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와 공동으로 ‘민선 5기 광주시 문화정책 소통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5기 광주시 출범에 맞춰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정책 대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문화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영직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 문화시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동진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과 김하림 조선훈 교수가 각각 ‘민선 5기 광주시 문화정책’과 ‘민선 5기 광주시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의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으며, 김영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지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책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 정책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선 5기 문화정책 방향은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며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문화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상호 연관 고리를 구축하면서 지역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유기적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라며 “다양한 주제들을 참



여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놓칠 수 있는 분야를 보완하는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야 하며, 민선 5기 광주시 문화정책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2·12 항거’ 장태완 前수경사령관 별세



2000년 3월 민주당에 전격 입당, 같은 해 16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고인은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서훈하였고,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호헌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인 이병호씨와 딸 현리씨, 사위 박용찬(인터젠 대표)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29일 오전 8시30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족과 재향군인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웃도 보청기입니다. 내신도 보청기입니다. 가사도우미도 보청기입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3) 227-99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총괄점 (092) 227-9970

순천점 (061) 753-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신경선님 WELCOME TO UDOJAM

슬로시티의 승도

엘도라도리조트

예약문의 02-727-2041
 11월 1566-2200

서늘머스 매일은행 (최신형 관광버스)

• 당일서물 : 15,000원(주말) / 18,000원(주말) 밤배

중도 1일 체험관광

선명	요금
서늘머스-엘도라도 해수사무너	20,000원
서늘머스-소금동굴(일명천대)	20,000원
서늘머스-소금동굴(일명천대)-해수사무너	25,000원

※ (주말) 15,000원 (주말) 18,000원